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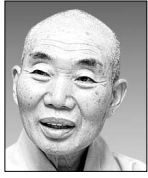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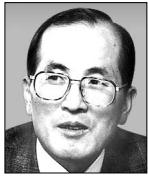
지역 노인 경로잔치 개최
전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1월 19일 관내 100세대의 불우 독거노인들에게 총 1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평화통일 민족화해 기원 법회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법혜 스님은 1월 29일 천안컨벤션센터 VIP홀에서 '평화통일 민족화해 및 천안시민안녕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서울 용산구 원효사 주지 학봉 스님은 최근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5백 여 만원을 전달했다.



서초반야회와 신년 합동법회
법조불교인회 전창렬 변호사는 1월 29일 서울 조계사에서 서초반야회와 공동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초청, 신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임시총회 및 8기 환영식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조우영 회장은 2월 14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제1강의실에서 2004년 상반기 임시총회 및 8기 환영식을 봉행한다.



연세대서 사경지도자 양성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은 오는 3월부터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사경지도자 과정을 열고 강의를 진행한다.



제32차 수련회 개최
법륜불자교수회 강수균 회장은 1월 31일부터 2월1일까지 육포 용연사 대웅전에서 제32차 동계수련회를 봉행했다.



7일 제24회 입학식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학장은 2월 7일 서울 종로구 동산반야회관 2층 법당에서 제24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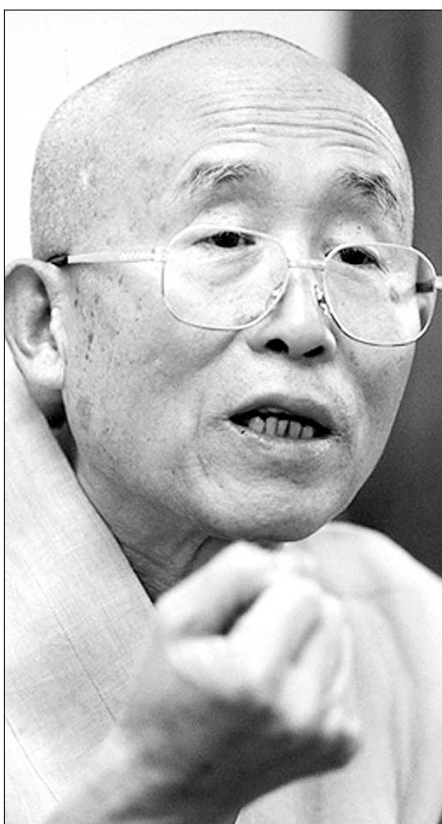


광주 서부경찰서 불자회장 당선
광주 서부경찰서 보안과 김창배 경사는 1월 16일 서대 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서부경찰서 불교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인 교수가 최근 통일·대북 정책 수립과 남북화해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화엄경 청량소초현담기 편찬
동국대교원장 월운 스님



“격식을 갖춰 공부하는 것을 예로부터 이력(履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력으로 공부하는 곳이 줄어들고 있는 등 좋은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법을 되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편찬했습니다.”

평생을 대장경 역경 사업에 매진해온 동국대교원장 월운 스님(사진)은 최근 <화엄경청량소초현담기(華嚴淸涼疏妙懸談記)> 2권을 편찬하고 “한편으로 편찬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좋은 법보를 전하러 동호인과 나눔으로써 교화에 눈 밝은 좋은 학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출판 소감을 밝혔다.

<화엄경청량소초현담기>는 중국 화엄 5조인 청량 정관 스님이 저술한 <화엄경청량소초>에 대한 총론서. <화엄경청량소초>는 화엄경 전체의 대의를 소개한 책으로 화엄경 주석서의 주석서다.

“사기는 우리나라 승가에서만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강백이 자신의 제자가 강사로 처음 강의를 나갈 때 그 법을 인정하는 전강신표(傳講信表)이자 원전소개, 낱말풀이, 해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사용 지침서입니다. 그러나 사기는 모두 필사본으로 오로지 오로지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일반 초서와 다른 불교문의 고유한 초서로 쓰여져 초서에 능통한 한문학자나 강원의 강백들도 쉽게 그 뜻을 알지 못해 전국을 돌며 사기를 모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눈 밝은 학인 배출 위해
능엄학림 논강 토대로 정리

信表이자 원전소개, 낱말풀이, 해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사용 지침서입니다. 그러나 사기는 모두 필사본으로 오로지 오로지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일반 초서와 다른 불교문의 고유한 초서로 쓰여져 초서에 능통한 한문학자나 강원의 강백들도 쉽게 그 뜻을 알지 못해 전국을 돌며 사기를 모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의 후원으로 발행된 이 책은 능엄학림 3기 연구생들이 매일 경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논강과 월운 스님이 이를 검증하는 문강과정을 거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 월운 스님은 그동안 능엄학림 연구생들과 <화엄경청량소초>의 색인집이라 할 수 있는 <과도지(科圖集)>과 <화엄신지품사기삼가본(華嚴十地品私記三家本)>을 편찬했다. 김두식 기자

최고령으로 포교사 된 임응옥 씨



교육단체련 '제2회 포교사고시' 서

“오랫동안 사찰에 다니면서도 불교를 너무 모른다 는 생각이 들어서 불교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고만 있던 영감이 오네요.”

지난 1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공동대표 대은 스님 등)가 실시한 제2회 포교사고시에 응시한 임응옥(71·대전 보현불교대학) 씨는 합격 통지서를 받아 들고 소탈한 웃음으로 소감을 밝혔다. 최고령 합격자라는 부연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신심이 깊은 불자들이 많은데 합격증을 받아들이기 부끄럽다”고 말했다.

“어떤 분야에서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할지 갑작스레 고민이 생기네요. 짧은 지식이지만 더 많은 사

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발심을 해야겠습니다.”

3월 열리는 품수식을 기다리는 임 씨의 각오는 남다르다. 30여년의 신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화합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서 보현불교대학에서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에는 121명이 응시해 108명이 합격했으며, 김경재(동산불교대학) 씨와 김혜연(보현불교대학) 씨가 공동으로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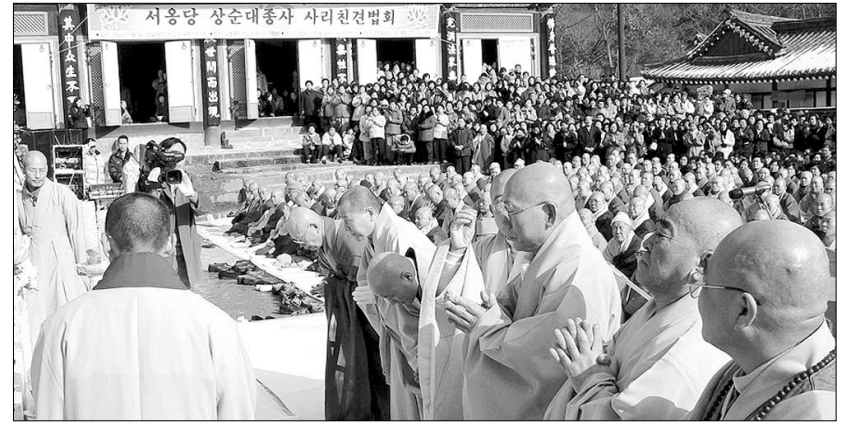
문광부 종무관에 김수연 씨



문화관광부 종무실 종무관에 김수연 전 감사관실 감사관이 1월 27일자로 발령받았다. 김 종무관(사진)은 1976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2002년 8월 예술극 예술진흥과장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인사

부산법어사
△부주지 영환 △총무 범산 △기획 정만 △교무 의정 △재무 원범 △포교 일광 스님



서운 스님 49재, 5천여 불자 애도속 엄수

조계종 전종정 서운 스님 49재가 1월 30일 김해종 종교학과 교수가 “현각 스님이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해 불교에 귀의한 만큼, 불교의 참선을 접해보지 못한 기독교, 천주교 학생들에게 불교의 영적 깊이와 삶의 성찰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은경 기자

지 세민(해인사) 영조(송광사) 몽산(대흥사) 백암(선운사) 명설(화엄사) 마근(신흥사) 스님, 재가신도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백암사는 이번 49재를 맞아 ‘참사람 서울 큰 스님’ 화보집을 발간했다. 이준엽 기자

현각 스님 서강대 강단에 선다



3월부터 '참선과 삶' 강의

베스트셀러 <만행 하버드에서 화제까지>의 저자이며 화계사 국제선원장인 현각 스님(사진)이 가톨릭대학 서강대에서 참선을 가르친다. 스님은 1학기 동안 종교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점짜리 ‘참선과 삶’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3월부터 매주 화·목요일 1시간 15분씩 영어로 진행되며, 참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참 시간도 마련된다.

수강인원은 학생들이 높은 관심으로 당초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됐다. 김승혜 종교학과 교수는 “현각 스님이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해 불교에 귀의한 만큼, 불교의 참선을 접해보지 못한 기독교, 천주교 학생들에게 불교의 영적 깊이와 삶의 성찰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은경 기자

불교신문 지령 2000호 축하 리셉션



불교신문 지령 2000호 발행 축하 리셉션이 1월 27일 서울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불교계 언론인과 각종단 지도자 등이 참석한 이날 리셉션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축사, 노무현 대통령의 화상 축사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태복 장군 38년 군생활 마감



법당 건립 시주금을 뇌물로 문금시킨 군 사법기관에 맞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김태복 장군이 1월 27일 육군 제2291 부대에서 전역했다. 38년간의 군 생활을 마친 김 장군은 이날 전역식에서 “군 사법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군 수뇌부에 고언했다.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조상의 무덤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영의령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우고 새우를 같이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청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직원모집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찰에서 근무할
청철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인원 : 0명
조건 : ○ 신심있는 불자를 환영함
○ 영업경력 있는 자 우대
○ 남, 여(35세 이상)
○ 차량 및 운전면허 소지자
○ 서울, 경기 지역내 거주자
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연봉 2,500만 ~ 3,000만원 정도 가능함.
서류는 FAX로만 접수 가능하며
서류 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후
통보함.
FAX 번호 : 031)906-5108

녹음테이프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입할 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45만원
▶ 총합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3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63 - 5145

山藥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蔓蓼(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도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蓼가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藥)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사. 여자분들이 만삼(蔓蓼)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전신이 떨어졌다.
* 손발 저린 것이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인포진이 나았다. * 자궁 물속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 8292, 562 - 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1-9242-8292
* 농업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만삼달인물(만삼생각10kg, 왕기, 잔대, 삼귀구름소, 생강, 대추, 감소)
* 1 Box × 60포 : 20만원 * 2 Box × 120포 : 35만원